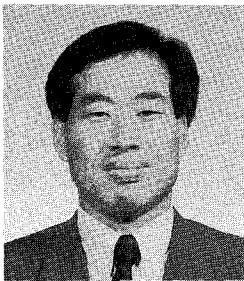


생산조절에 초점이 맞춰진 자조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 재 권
(조인(주) 대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 항상 재미있고, 또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행복한 삶이 보장되길 소망할 것이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이어온 생물의 역사는 크고 힘이 세고 강한 것이 세상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작고 힘이 약한 생물이라도 변화에 잘 적응한 종(種)들이 영속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될 경우 우리는 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양계 관련업계가 모두 행복하게 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업체보다는 적정한 이익을 내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고객

감동의 실천으로 발전하는 업체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진심어린 마음이며, 과연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열린 사회에서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보다 는 너도 살고 나도 같이 잘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자의 입장을 내 세우기 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바라고 원하는 상품(계란)과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고객이 소비자라면 영양 많고 신선하고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을 원할 것이며, 반면 고객이 상인이라면 소비자가 좋아함은 물론 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계란을 원할 것이다.

진정 고객들은 과잉생산을 해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익이 적은 값싼 상품(계란)이나 서비스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양계인이 예측 가능하고 보다 정확한 통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협회를 중심으로 사육규모, 사육수수, 연간 입추수수, 도태수수 등을 정보화해서 양계인들이

언제나 생산 잠재력을 파악하고, 입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위한 홍보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답보 상태나 위축되고 있는 계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다양한 요리개발과 홍보를 하려면 자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에 관심을 기울여 체계화시킬 경우 양계산물의 소비신장 뿐 아니라 업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노계도태활용 방안을 들 수 있다.

계정육 업체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연중 노계가격을 합리적인 선에서 고정가격제로 계약을 하고 업체는 협회를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한다면 노계도태도 작금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것이 활성화되면 자조금을 노계를 통해 거출할 수 있는 방안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자조활동 사업을 꾸려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자조활동자금 단체 등이 지정되어 추진될 사업이 진정한 업계의 발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바라고, 어려운 채란 경기를 조기에 수습하여 경기가 안정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자조금법이 생산조절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노계를 팔면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며, 지금부터 자조금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다.

또한 계정육업체도 싸게 공급되는 노계에 대해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소비창출 방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홍보 등을 통해 자조활동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금년에는 우리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작년보다는 이익도 많고 일도 많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양계**